

2024 새해 이렇게

이상철 곡성군수

사람 머무르고 찾아오는 '매력 곡성' 만들겠다



곡성읍·옥과·석곡권, 문화관광·생태치유·미래농업 거점 육성 곡성형 청년 하우스 타운·스마트 청년농부 캠퍼스 조성 박차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해 곡성 관광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하고, 집 없는 청년에게 주거 공간을 주는 ‘청년 하우스 타운’ 등을 조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10일 광주주요뉴스와 새해 인터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를 균형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곡성읍권과 옥과권, 석곡권 등 3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곡성읍권은 교육·문화관광·경제를 아우르는 체류형 복합 거점으로 키워내고, 석곡권은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치유 거점을 만든다.

옥과권은 스마트팜(첨단농장)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미래농업 중심지로 거듭난다.

곡성군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16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기금사업비는 202억원으로 책정되며, 전남 최대 규모의 기금사업비를 거머쥐었다.

이 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이 머무르고 찾아오는 매력 곡성’을 내걸고, ‘곡성형 교육생태계 완성’과 ‘지역자원 연계 청년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청년이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과 농촌 유학을 복합화할 수 있는 ‘러스티타운(전원단지)’의 범위를 넓힌다. 지역 폐교를 활용해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 마을을 만들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곡성, 돌아오지촌(村)’을 확대한다.

올해는 새롭게 ‘곡성형 청년 하우스 타운’이 곡

성읍권에 마련된다. 2026년 준공 목표로, 곡성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이 입주 자격을 먼저 얻는 주거 공간이다.

옥과권에는 창업농 정착을 돕는 ‘스마트 청년 농부 캠퍼스’를 조성하고, 옥과권·석곡권에는 농촌유학 마을이 들어선다.

이 군수는 “생활인구 300만 시대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삼기 러스티타운’과 ‘너나들이 석곡’ 유학마을,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 마을’ 등을 구축했다”며 “최근에는 양수발전 예비사업자에 곡성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죽곡면 고지리 일원에 1조4000억원 규모 양수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 일자리 창출·생산 유발 효과의 호기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비 442억원을 확보하며 곡성 관광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한다.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자원 조성’과 ‘레저케이

션 관광스테이 확충’ 등 2개 사업이 핵심 사업이다.

총사업비 334억원이 드는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자원에는 ‘슈퍼트리’ ‘미디어가든’ 등 새로운 관광요소가 접목된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동화정원을 연결하며 섬진강 여행의 특화 관광거점이 될 전망이다.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에는 사업비 108억원이 들어간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섬진강, 대항강으로 이어지는 35km 강변이 사업 주 무대다.

기차마을 유스호스텔을 새롭게 단장해 ‘생태레저 관광’을 즐기러 온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 20만원, 지역기업 취업 청년에는 월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밀착 정책을 펼쳐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 힘쓰겠다”며 “농촌에서 매력 있는 도시 환경을 즐길 수 있고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삶을 누리는 새로운 곡성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양시, 지난해 2조7503억원 투자유치...역대 최고 실적

올해 20개사 3조원 유치 목표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구축

광양시가 지난해 22개 사, 2조7503억원의 투자유치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광양시는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는 20개 사, 3조원 투자유치 실적을 목표로 국내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협약을 포함해 22개 사, 2조7503억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했다.

원료 공급과 가공, 소재 생산 및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르는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울촌산단에 이차전지 수산화리튬을 생

산하는 포스코리튬솔루션㈜ 5751억원,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 1조1300억원, LFP 배터리 ESS를 제조하는 나라다에너지 600억원 등 이차전지 액터기업 투자는 총 1조7901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65%를 차지한다.

광양 울촌산업단지에는 지난해 7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니켈·코발트를 추출하는 포스코 HY클린메탈㈜, 11월 연간 4만3000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 공장이 각각 준공했다.

울촌산업단지에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생산공장에서는 고성능 전지차 약 100만여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한다.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에도 ㈜에스엔엔씨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세풍산단 ㈜사이아에스케미칼이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에 각각 나서고 있다.

세풍산단, 동호안 부지에는 산업단지를 적기 공

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풍산단 공영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부지 규제 해소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를 신속 지원한다.

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지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과 투자기업의 사후관리까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 전후방산업 등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투자유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지역 전략 산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유치해 기업 유치가 도시 성장의 핵심이 되는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공동브랜드 개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주민 공동 브랜드 개발 교육 수료식

구례군은 최근 구례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023 삼대삼미 공동 브랜드 개발·도시 브랜드’ 수료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 주도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교육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구례 주민 1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한 구제화, 차별화된 상품 발굴·개발 등을 위한 훈련을 했다.

수업에서는 김민식 더하다 디자인연구소 대표

가 주민 스스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주민이 원하는 색상과 형태가 담긴 도시 디자인을 개발해 각종 사업 대상지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례군은 주민 맞춤형으로 제작된 기본 외형을 바탕으로 응용 상품을 더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의 열정이 담긴 디자인이 구례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구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세액 4.58% 공제 혜택

보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연납 신청을 한 뒤 완납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내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 신청 시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보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서 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 국세청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낼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아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보성군은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자로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9만원 인상

순천시는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최대 9만원(14.4%) 인상하는 등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복지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도 상향 지원한다.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월 최대 9만원(14.4%)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은 월 최대 21만원(13.16%) 오른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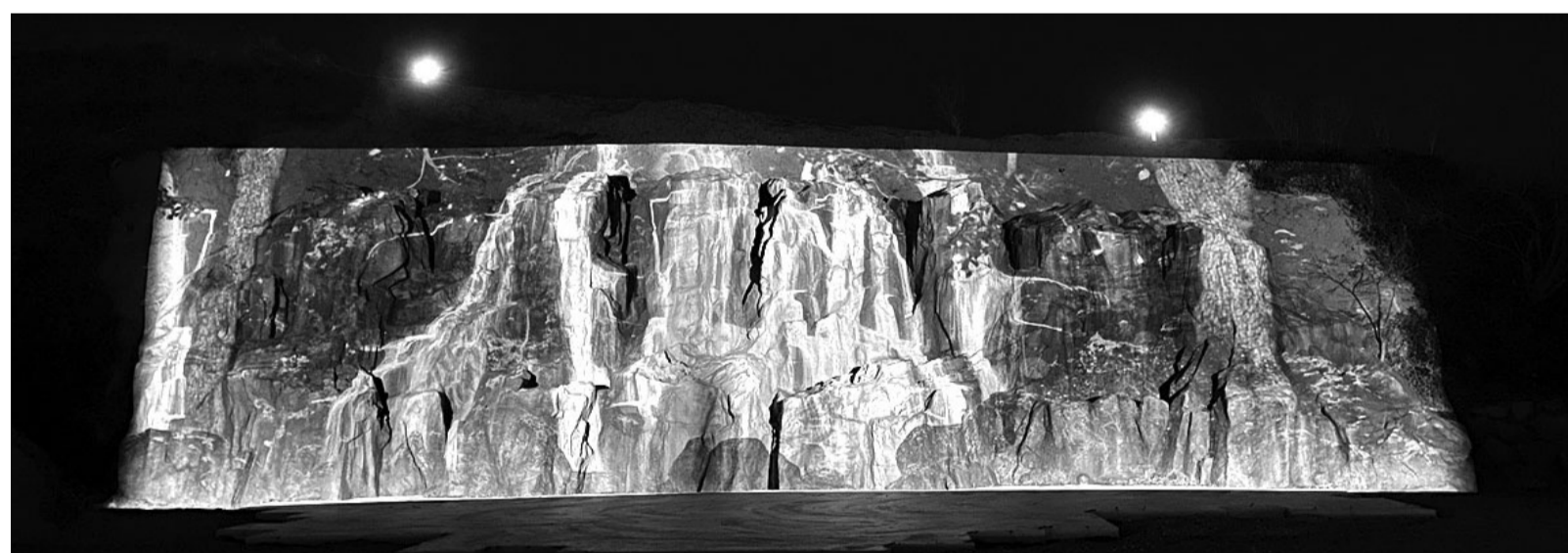
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급지, 가구별 1만1000~2만7000원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올린다. 초등학교는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순천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지자체로 선정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된 여수 장도 진섬다리 입구에서 이달부터 미디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예울마루&장도 야간 볼거리... ‘스마트 마이스’ 시설

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 진섬다리 입구 다양한 미디어 작품

전남에서 유일하게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뽑힌 여수 ‘예울마루&장도’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유니크 베뉴’는 한국만의 매력과 지역적 특색을 지닌 행사 공간(마이스·MICE)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여수 예울마루&장도를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했다.

여수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주관한 ‘지역 마이스 산업 미팅테크놀로지 지역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도전에는 전남도관광재단과 재단법인 GS칼텍스재단, 여수시가 협업했다. 앞으로 전남도관광재단이 시설을 설치, GS칼텍스 재단은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공모 선정으로 이 공간은 사계절 낮과 밤에 볼거리가 가득한 ‘스마트 마이스 시설’로 거듭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마이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에 스마트

마이스가 실현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장도 진섬다리 입구에 다양한 미디어 시설물이 설치된다. 여수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 4점과 지역작가 작품 1점을 포함해 총 5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울마루&장도의 매력을 알리고 야간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개최 최지점에 걸맞은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치매 어르신 살피기 ‘친구 맷기’ 사업

고흥군이 홀로 사는 치매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1대7 친구 맷기’를 추진한다.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들은 ‘1대7’ 비율로 치매 환자 80여명의 건강을 관리하기로 했다.

돌봄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1인

가구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이다.

센터 근무자는 한 달에 한 번 이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족의 부재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고통을 늘려 치매 악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센터는 앞으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복약 지도, 청결 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환경 정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에는 치매 환자 집중 방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